벽돌과 시멘트 이상의 것

오늘날 교회에는 10,000개가 넘는 말일성도 집회소가 지구촌 곳곳에 산재해 있다.

1950년대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제1보좌였던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은 와드와 지부의 집회소를 교회의 "발전이라는 위대한 고속도로에 남겨진 표시들"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처치 뉴스*, 1953년 10월 31일, 3쪽)

실제로 집회소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입증해 주는 물질적인 증거이다. 핀란드에서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알래스카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섬들에서 남아메리카의 고원 지대에 이르기까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집회소들이 온 땅에 산재하여 있으며, 대부분의 집회소에는 하늘을 향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첨탑이 솟아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 건물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 건물에는 벽돌과 시멘트, 지붕과 마루, 복도와 교실 이상의 것이 있다.

그 중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말일성도 집회소가 예배의 장소라는 점이다.** 이곳은 우리가 주님의 성일에 가서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교리와 성약 59:10 참조) 이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위대한 속죄와 회생을 기억하여 성찬을 취하며, 그분과 맺은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곳은 우리의 영이 주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말일성도 집회소는 기도의 장소이다. 예배당에서 공과 교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와 겸손히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린다. 조그만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가슴에서 느낀 것들을 표현하는 기도가 올려지고 있으며,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커다란 축복을 받는다.

말일성도 집회소는 의식의 장소이다. 어떤 곳에서는 개종자와 8세에 이른 어린이들에게 성신권의 권능으로 침례를 주는 의식이 베풀어지며, 모든 집회소에서 침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행할 수 있고 또한 유아 축복을 줄 수가 있다.

말일성도 집회소는 배움의 장소이다. 우리는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협회에서 배우기 시작하여, 여러 해를 지나면서 주일학교와 청녀회 그리고 상호부조회와 신권 정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배우며, 우리의 교사와 지도자에게서도 배운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연사들로부터도 배운다. 복음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강해질 때, 대체로 우리의 신앙과 간증 및 결심 또한 강해진다.

말일성도 집회소는 형제애와 자매애가 자라는 장소이다. 우리는 매주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힘을 느낄 수가 있으며, 이 힘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강화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위대한 결속의 끈을 느낄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진다.

말일성도 집회소는 사랑과 동정심을 키울 수 있는 장소이다. 신권 소유자들이 모여 한 미망인의 집에 새로운 지붕을 만들어 주는 일을 논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이며, 또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병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는 곳이 이 곳이다. 또한 청녀들이 그 지역에 새로 이사온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질 준비를 하거나 또는 청남들이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는 곳도 바로 이 곳이다.

말일성도 집회소는 경건의 장소이다. 우리는 참된 경건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성한 분위기에서 정숙하고 경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말일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대사원의 한 구석진 방이나 작은 방

도 아니며, 금과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제단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당은 겉꾸밈이나 허식이 없으며, 조각도 없고 그림도 거의 없는, 단순하고 평범하며, 깨끗하고 밝으며 경건한 장소입니다. 그 곳은 또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참된 형제애 안에서 공과를 가르치고, 합창단이 노래하며, 회원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영감을 얻고, 젊고 늙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곳에서 생각과 행동의 습관이 잉태되어 생활 속으로 스며들며, 그 곳에서 신앙이 태어나 불이 붙고, 정결케 됩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222쪽)

우리는 와드나 지부에 집회소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집회소는 인생의 폭풍우를 피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이다. 그리고 이 곳은 위안을 얻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평화의 장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점은 교회 건물이 절대로 가정을 대신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의로운 장소 곧 복음을 가르치고, 경전을 공부하며, 기도를 통하여 가슴에 담긴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신앙과 간증을 발전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곳이다.

1960년에 대관장단은 교회의 본부 신권 위원회에 보낸 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토대로,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가정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와드나 지부의 집회소에서 행해지는 설교와 여기서 가르쳐지는 공과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로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대치하는 것이 아닌-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993년 12월 4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

홍병식 형제

신임 대전 선교부장

캘리포니아 주, 샌타 마가리타 스테이크 미션 레이크 와드에 소속되어 있는 홍병식 형제(61세)가 신임 대전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홍형제는 북미 서 지역 공보 부책임자, 주일학교 교사, 성전 의식 봉사자,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선교사, 지방부장 보좌, 지부장, 세미나리 교사 등을 역임했다.

홍병식 형제는 전라북도 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미국의 내셔널 대학에서 일반 경영학 석사, US인터내셔널 대학에서 기술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부름 받기 전 샌디에이고의 내셔널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가족으로 부인 이정순 자매와 네 자녀가 있다. 이정순 자매는 서울 태생으로 이화여자 대학을 나왔으며, 상호부조회 회장 및 초등협회 회장 보좌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와드 도서실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스웨인 형제

신임 서울 서 선교부장

얼 에스 스웨인 형제(46세)가 서울 서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스웨인 형제는 미국 유타 주 밸리파크 테일로스빌 스테이크의 밸리파크 제4와드 회원이다. 그는 현재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 감독 및 감독단 보좌, 집행 서기, 주일학교 교사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었다.

스웨인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가족 관계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교육 심리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교회 교육 기구 교사로 일하고 있다.

스웨인 형제는 로버트 스탠리와 펠리스 카취너 스웨인의 아들로 애리조나 주 메사에서 출생했다. 가족으로는 부인인 케이시 라레인 스웨인 자매와 다섯 자녀가 있다. 스웨인 자매는 현재 주일학교 교사 및 가족 역사 성명 초출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청녀 회장단 보좌, 상호부조회 회장 및 보좌, 상호부조회 자선 봉사 지도자 및 교사, 청녀 고문 및 초등협회 교사 등을 역임했다. 스웨인 자매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서 유진 찰스와 비비안 제인 번사이드 블랙먼의 딸로 출생했다.

대구·광주 스테이크 합동 독신 무도회

온 땅과 만물이 싱그러운 기운으로 가득한 오월, 달구벌에서는 아름다운 꽃과 음악 그리고 100여 명의 선남 선녀들이 어우러진 즐거운 축제가 열렸다. 지난 5월 5일에 열렸던 대구·광주 스테이크 합동 독신 무도회가 그것이다.

대구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전정신 형제의 감리와 수성 와드의 정욱종 형제의 사회로 시작된 이 모임은 전정신 형제의 환영 말씀처럼 '수성 와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많은 선남 선녀들이 모여'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활동은 광주 스테이크의 양광수 형제가 맡아서 레크레이션, 무도회, 다과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무도회 시간에는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고 준비된 음악에 맞춰 다양한 춤을 즐겼으며, 중간 중간 다과를 나누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로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이 모임은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 되었는데, 모임이 끝난 후 독신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양 스테이크 독신 간의 우정과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기사 제공: 서나미 자매)

인천 스테이크 용현 와드 신축 건물 헌납

인천 스테이크 용현 와드(감독:이태호 형제)에서는 지난 5월 7일 총관리 역원인 한인상 장로의 감리하에 신축 건물 헌납식을 가졌다. 1979년 4월 1일 인천 와드에서 분리된 후, 16년 간 염원하던 일이 이루어져 이태호 감독을 비롯한 회원 모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용현 와드 건물은 행정 구역상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 3동 208-1에 위치하여 247.5평의 대지 위에 최신 건식 공법으로 지어진 연건평 111.2평의 아담한 2층 건물로써, 예배실에는 18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3개의 공과실과 넓은 주차장까지 갖추어져 있다.

1981년, 1983년에 이어 1992년 5월에 다시 감독으로 부름받아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는 이태호 형제는 그동안 전세 건물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던 일과 스테이크 센터에서 셋방살이(?)할 때 교통이 불편하다며 비활동된 회원들을 대할 때 마음아파 하던 일 그리고 1983년 8월에는 부친이기도 한 이창현 감독이 감독 재임 중에 교통 사고로 별세해서 모든 회원이 비통해 하였던 일 등을 생각할 때 이날은 기쁨보다 감사함이 더 앞선다고 말했다.

이날 헌납식은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으로 매우 영적인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도록 노력하고, 이 건물이 사탄에 오염되지 않고 장차 시온의 스테이크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였으며, 지역 대표인 고원용 장로는 건물의 헌납과 함께 회원들의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헌납하기를 당부하였다.

이날의 헌납식을 축복하고 감리한 한인상 장로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하며 사랑으로 무장되길 당부하였다. 아울러 좋은 시설이라고 저절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닌 만큼 자녀들에게 모두가 희생과 봉사를 가르치고 실천하기를 권고하였으며, 건물 내에서는 주님 앞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를 당부하였다.

(기사 제공:이성렬 형제)

'95 광주 스테이크 합창 경연 대회

"다 와서 주께 찬양하세
말일에 예언자 주시고…"

영혼을 적시는 찬송 소리가 초여름의 기운이 감도는 땅과 하늘에 울려 퍼졌다.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5월 27일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합창 경연 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는 스테이크 내의 와드/지부가 참여하여, 지정된 찬송가를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열띤 경연의 장이었다.

인원수를 고려하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와드/지부를 나누어 시상을 하였는데, 영예의 대상은 김진 자매의 지휘로 찬송가 13장을 발표한 충장 와드가, 와드 1등상은 백운 와드, 와드 특별상은 목포 와드, 지부 1등상은 송정 지부, 지부 특별상은 광양 지부가 각각 차지하였다.

대상을 차지한 충장 와드 합창단은 적절한 악상 표현과 잘 다듬어진 화음 그리고 박정자 자매의 돋보이는 독창으로 합창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 주었고, 합창단의 일원인 농아 자매들의 수화 발표는 순수한 찬양의 느낌을 잘 전달하여 청중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심사 위원의 일원이었던 최중배 형제(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는 최종 심사 발표를 하면서 이 행사가 이 지역 교회 음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다음 대회는 더 수준 높은 대회가 될 것을 소망한다고 말씀했다.

한편, 매년 개최되어 온 광주 스테이크의 합창 경연 대회는 지역 성도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고, 신앙을 강화하며, 서로 단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기사 제공: 서유미 자매)

전국 흑백 사진 대전 금상 수상

-강희준 형제-

한국 사진 협회 대구시지회 주최 제17회 전국 흑백 사진 대전에서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의 강희준 형제가 "장날"이라는 주제로 출품한 사진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였다. 본 대전은 흑백 사진의 예술성을 진작시키고, 사진인의 창작 의욕을 높일 목적으로 개최되며,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입상을 꿈꾸는 권위있는 대회로써, 이번에도 전국에서 총 449점이 출품되었다. 강형제의 이와 같은 성취는 각 일간 신문 문화란에 크게 보도되었다.

강형제는 현재 대구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이자 대명 와드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이번 입상 소감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말일성도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삶을 일관하시다가 얼마 전에 타개하신 어머니께 돌리고 싶다고 겸손하게 밝혔다.

(기사 제공: 권찬태 형제)

출판물 안내

어린이 노래책

다함께 노래를, 어린이를 위한 노래 모음 및 활동 노래와 동시를 대신해서 사용될 어린이 노래책이 출판되었다. 각 와드/지부의 초등협회에서는 위의 세가지 노래책 대신 어린이 노래책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 노래책에는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복음, 가정과 가족, 오락과 활동, 유산 등으로 분류된 120곡이 수록되어있으며, 책의 크기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고, 스프링으로 제본되어 있다. 서울 신당동 관리본부 사무실나, 교회 출판물 전시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3000원이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175기

(1995년 4월 17일~5월 5일)

〈성 명〉	〈출 신 지〉	〈선 교 부〉
강소림 자매	인천S/만수W	부산 선교부
김말숙 자매	서울 북S/홍제B	대전 선교부
김복순 자매	서울S/삼청W	부산 선교부
이선희 자매	인천S/계산W	대전 선교부
이성윤 장로	서울 서S/상도W	대전 선교부
최승철 장로	청주S/금산B	서울 서 선교부
최윤영 자매	서울 동S/도봉W	부산 선교부

앞줄 왼쪽부터: 강소림, 최윤영,
뒤줄 왼쪽부터 :이성윤, 김복순, 이선희, 김말숙, 최승철,

성도의 벗 지역 소식 및 어린이란 타이틀 공모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성도의 벗의 어린이란과 지역 소식을 좀 더 흥미 있고 정확하게 특징 지을 수 있는 타이틀로 바꾸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5자 이내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교회 회원 및 구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소속 와드/지부 및 성명을 함께 적어서 우편으로 7월 31일까지 도착되도록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선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소식을 필리핀에서는 Dateline, 유럽의 영어 사용 지역에서는 Performance, 어린이란은 Friend를 타이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우편번호:133-600)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176기

(1995년 5월 15일~6월 2일)

〈성 명〉	〈출 신 지〉	〈선 교 부〉
김홍민 장로	서울S/ 신당W	대전 선교부
민선홍 자매	서울 서S/상도W	부산 선교부
박은자 자매	인천S / 답동W	대전 선교부

왼쪽부터: 박은자, 민선홍, 김홍민

분리 재조직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스테이크 대회에서 부산 서 스테이크가 마산 스테이크와 부산 선교부 산하 부산 서 지방부로 분리 재조직 되었다. 새로 구성된 스테이크 부장단 및 지방부장단은 다음과 같다.

- 마산 스테이크 부장단
  스테이크 부장: 배태호 형제
  1보좌 : 하장호 형제
  2보좌 : 김충석 형제

- 부산 서 지방부
  지방부장 : 염호경 형제
  1보좌 : 강신용 형제
  2보좌 : 안종원 형제

역원 변경

- 마산 스테이크
  경화 와드 감독: 하정욱 형제
  (전임자: 김충석 형제)

-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지부장: 노현철 장로
  (전임자: Leeper장로)

-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감독: 양홍규 형제
  (전임자: 김동의 형제)
  용현 와드 감독: 김철수 형제
  (전임자: 이태호 형제)